

잡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9. MAY + JUNE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금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달을 향해 나아가라.  
달에 미치지 못해도  
별들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 진 시몬스



## Contents



2019.  
may + june

발행일 2019년 5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04 **10th Anniversary Symposium**  
법전문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 010 **power interview**  
양지훈 변호사
- 014 **hot issue**
- 016 **special report**
- 020 **media essay**
- 022 **letter from**  
남기엽 변호사  
왕성민 기자
- 028 **real story**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장예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상욱
- 034 **contest**  
변론 능력으로 승부하라!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 038 **happy lawschool**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근현 학생
- 041 **book**
- 042 **opinion**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영무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
- 048 **health mentoring**
- 050 **movie talk talk**
- 054 **culture**
- 056 **kals news**
- 058 **out campus**
- 059 **quiz**



# 법전문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전문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법전문원 도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법전문원대학원 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합격자 결정기준과 응시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법전문원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의 실질적인 모체이므로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사지역 정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내빈 및 법전문원 원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법전문원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전문원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전문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 〈인사말〉

법전문원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로스쿨의 정원 2,000명 범위 내에서 매년 응시자 대비 60% 이상, 장기적으로 75%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법전문원 교육의 정상화와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것입니다.



## 〈축사〉

법무부 박상기 장관

합격자 결정기준과 응시제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포함한 응시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법률시장을 묶어 놓거나 심지어는 유사지역에 의하여 변호사 직역이 잠식되는 상태를 방관한 채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법전문원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법전문원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 발제 1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

이승준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부는 매년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법무부는 ‘누적합격률’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응시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중대한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경우는 물론 의사 국가시험 등 어느 시험에서도 ‘누적 합격률’로 응시자 증가현상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려 하지 않았다.
-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 숫자를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공급자인 변호사들의 이해에 따라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법전문원대학원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진 합격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새로운 합격률 산정기준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승준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발제 2**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명순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판례암기 :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때와 똑같이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되고 있다. 시험유형별로 출제경향과 이에 대비한 학습방법이 다르므로 결국 학생들이 체감하는 시험과목은 20개가 넘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 정규수업과의 괴리 : 판례 결론 위주의 단순한 출제는 로스쿨이 원래 목표로 하던 학습을 진행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교수들의 고유한 강의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 변호사시험의 개선 : 변호사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실무환경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문제로 출제하고, 그것을 실무가들이 작성하는 것과 같은 서면에 단말기를 통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선택형과 사례형·기록형이 구별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발제 3**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방대 육성법상의 지역균형인재의 정의와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내용대로의 로스쿨에의 적용은 실질적인 지역균형 또는 국가균형 달성을 위한 지역인재 유치 논의의 본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지역인재 할당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지방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취업 내용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지방 로스쿨에게 지역인재 할당제를 강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고, 취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방대학 출신을 지방 소재 로스쿨로 유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로스쿨의 입학관련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관된 방향성을 갖춘 담당으로 근거법령 정비를 통해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순구 교수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조소영 교수가 법전문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토론자들의 모습(왼쪽부터 김인재 교수, 김창록 교수, 문상연 과장, 김인숙 검사, 이승호 교수(좌장), 장승주 기자, 오현정 변호사, 박은선 기자, 이석훈 학생)

**토론 1** 김인재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전문에서의 전문법률 교육을 정상화·강화하기 위해서는, 7개 선택과목에 한정되어 있고, 법전문원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을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전문법률 과목 학점 이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 이수제 도입은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아울러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방법의 간소화 또는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토론 2** 김창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아니다.
- 합리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과정이 수를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전략했다. 합리성 없는 개념(누적합격률 80%)으로 잘못된 현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 미리 정할 수 있는 '적정 변호사 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변호사시험법"10조1항)에 맞게 '가벼운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토론 3** 문상연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최근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되면서 법조인 양성기관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법학교육과 달라질 필요가 있다.
- 현재 지역균형인재 선발은 지방대육성법에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의회 의견을 주시면 말씀하셨던 지역인재의 개념, 적용범위, 시기 등이 논의될 것이다.

**토론 4** 김인숙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보기에 앞서서 법전문 입학정원의 결정과정을 먼저 봐야 한다. 입학정원 2,000명은 당시 교육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2년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1,482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도탈락 졸업자의 80퍼센트를 적용해서 매년 1,440명 정도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법무부가 생각하기에 매년 입학정원이 2,000명이고, 매년 1,440명 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누적합격률'로 계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다. 누적합격률에 대해서는 더 고려를 해보겠다.
- 결원보충제 등으로 인해 입학 인원의 변동 요인이 있었고, 학사관리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이 있었으며 법전문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 현황과 시장에 대한 변화,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등 10년간 변화된 상황, 제도의 시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의 도입 취지에 가장 맞는 합격자 결정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토론자들의 모습





발제자들의 모습(왼쪽부터 이승준 교수, 이승호 교수(좌장), 명순구 교수, 조소영 교수)



1. 축사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2. 토론자들의 모습  
3. 개회사 중인 김순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4. 축사 중인 박상기 장관에게 피켓 시위를 하는 로스쿨 학생들



**토론 5** 장승주 기자 (아주경제, 변호사)

- 경험적으로는 법률시장에서의 변호사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만 살펴봐도 과거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수요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수의 증가가 변호사 수요 증가를 건인하는 경험적 증거라고 본다.
- 지역인재를 육성시키는 방안이라 지역인재 할당제도의 명분은 좋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적용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역인재 전형이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학금 혜택까지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정작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토론 6**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제2조),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10조 제1항).
- 현행 변호사시험의 운영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변호사시험 준비로 왜곡시키고 있으며, 로스쿨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반된다.

**토론 7** 박은선 기자 (오마이뉴스)

- 변호사가 2만 명을 넘어서며 바야흐로 '변호사 과잉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우리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아직 '내 옆의 변호사', '보다 낮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변호사들의 자유경쟁이 장려되는 사회이면 국가가 나서서 변호사의 도움을 제도화하는 사회이면, 양자 모두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변호사의 충분한 수'가 전제조건이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규 변호사의 배출에 대한 통제'는 그 통제에 의해 변호사들이 보다 덜 자유경쟁하도록 하니 '자유주의 국가'스럽지도 못하고, 시민이 더 많은 변호사를 더 낮은 모습으로 만날 기회를 잃게 하니 '복지국가'스럽지도 않다.

**토론 8** 이석훈 학생 (전국법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

-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압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특성화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49.35%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짓눌린 학생들은 또한 일관된 수강과목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판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의 학습을 가르치는 수업,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한 역사를 알려주는 수업, 법철학 수업이나 비교법과 같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수업은 외면당한다.
-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일방통로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1. 미출업자 인원 증가 해결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토론회 참석자(양필구 학생)  
2. 박상기 장관을 향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하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토론자(오마이뉴스 박은선 기자)



※ 심포지엄 자료집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건의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그만두는 법〉은 최근 서점가에서 직장인 필독서로 통한다. 눈길을 끄는 제목도 한몫했지만, 회사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노동법을 다룬 책의 내용이 직장인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책의 저자인 양지훈 변호사를 만나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노동법이 필요한 순간들

양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두 곳의 기업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었고 로스쿨에는 어떤 포부를 갖고 입학했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려움이 있다. 강제로 할당받는 업무, 사람과의 관계 등 조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거쳐 온 회사들은 관료주의적이고 군대 문화가 강하긴 했지만 그에 앞서 나는 본질적으로 조직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의 성향이 회사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회사 생활을 30~4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다소 회의적이었다.

로스쿨에 반드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퇴사 이전에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했는데 당시만 해도 정말 나이브하게 사회과학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입학을 앞두고선 법학도 그런 공부중 하나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었다(웃음).

**로스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로스쿨 1학년 때 인문사회과학 독서모임을 만들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회가 아니라 인문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학회는 아니었지만, 몇몇의 동기들과 함께 재미있게 운영했다.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인 김용철 변호사님께서 〈삼성을 생각하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김 변호사님을 학교로 초청해서 강연을 개최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내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 등 변호사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변호사님을 강연자로 모셨다. 큰 강의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특강은 대성공을 거뒀는데, 당시 로스쿨 학생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큰 특강을 개최한 건 정말 이례적이었다.

**로스쿨에 재학할 때부터 노동법에 관심이 많았나?**

노동법은 나의 지난 회사생활에서 불합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공부하기 시작했다(웃음). 감사하게도 전북대학교 로스쿨에는 노동법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셨고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노동법 강의를 12학점이나 들을 수 있었다.

로스쿨에서 노동법 수업을 수강하는 것과 필드에서 실제 노동사건을 접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 있는 실무는 오히려 훨씬 넓고 깊다. 로스쿨에서의 공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겠지만, 바깥세상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부가 많다는 것을 상상해봤으면 좋겠다.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법무법인 특수에서 6년간 일하다가 지금의 사무실로 이직을 했는데 당시에도 특수는 '공익로펌'으로 이름이 나 있어, 자연스럽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인맥도 넓힐 수 있었다. 노동단체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연이 닿아서 많이들 의뢰해 주시고, 또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보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을 통틀어서 노동사건이 1/3 정도 차지하니까 다른 변호사들보다 노동사건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아마 모든 변호사가 공통의 감정을 느낄 텐데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다(웃음). 여러 분야의 사건 중 노동사건에서의 승소가 가장 보람이 큰데, 해고, 징계 등 개인의 신변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가지 못했을 때 '사회적 신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당하는 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노동사건은 일자리가 사회적 생명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다시 회복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사건을 진행하는 나에게도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온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계의 현안들은 노동자와 사측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 아닌가?**

물론 노동계 여러 이슈들이 노동법률 자체의 문제점 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 안



에서 부하직원으로 받는 문화적 압박감이나 좌절감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의 문제라기보다 한국사회의 일상에서의 폭력적인 문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상사가 부하에게 함부로 대하는 문화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문화를 법이 제어할 수는 없다. 작년에 입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처럼 문화적이고 일상적인 부분까지 법을 통해 제어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퇴사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회사 그만두는 법>이 퇴사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책들과 동일하게 분류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오늘날의 퇴사 신드롬은 불안정한 지위나 신분을 부추기면서 '퇴사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다. 나 또한 퇴사 후 약 8개월 가량을 반(半)백수 생활을 하면서 보냈지만 자유롭고 즐거웠던 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그렇기 때문에 신불리 퇴사를 권유하거나 부추길 수 없다.

하지만 퇴사 신드롬이 각종 콘텐츠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대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일반적인 삶의 경로로 여긴다. 퇴사 신드롬은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삶의 경로가 정말 옳은 것인지, 이 길을 따라가면 과연 행복해질 것인지 질문을 던져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들비 일화가 인상적이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할 용기를 내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있는 블루칼라들이 목소리를 더 잘 내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공장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노사협



의회와 같은 이름으로 단체가 조직되기도 한다. 하지만 화이트칼라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직을 견고하게 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들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으려면 법, 규칙, 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제도적인 토대 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인들이 발언할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군대처럼 상명하복의 문화가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인 회사는 때때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근로계약에 기반한 회사의 모든 관계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회사가 애초에 의도했던 조직의 형태나 목표와는 무관하게 중간관리자의 잘못된 지시 결정과 업무환경 조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관리자들을 재교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영학계에서는 팀제, 상명하복식 조직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조직형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의 선진기업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곧 이러한 조직문화를 도입할 텐데 한국은 문제가 있는 중간관리자들 때문에 더 큰 홍역을 치를 수도 있을 것 같다(웃음).

**네이버 오디오 클럽 <회사인간 퇴사인간> 시즌2를 진행 중이다. 원동력은 무엇인가?**

<회사인간 퇴사인간>은 로스쿨 동기인 후배와 한 대기업 인사팀 부장과 함께 진행하는 '팟캐스트'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인데, 퇴사 후 회사 밖에서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 달에 한번 스튜디오에 모여 녹음을 하는데, 변호사 업무 이외의 프로젝트성 일인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잔잔하게 할 수 있어 1년 반 동안 진행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우리 프로그램을 재미있어 하는 출판사 편집자들이 계셔서, 방송 내용을 모아 책으로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존재들이라는 담담한 위로가 적힌 에필로그가 큰 위안이 됐다. 3년의 로스쿨 생활 끝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회사인간'이 될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달라.**

로스쿨 학생들이 3년 동안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돼서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나는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해 때때로 다른 종속처럼 취급받기도 하지만, 같은 시험범위에서 같은 공부를 한 선배로서의 경험에 비춰 조언을 해주고 싶다. 3년이라는 짧

지만 긴 시간동안 '법조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몰되면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차원의 것을 생각하는 상상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겠지만 필드에 나오면 더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더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웃음). 그런 의미에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조금은 의연해지는 것도 오늘을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 책 발간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나?**

현재 집필 중이다. <회사 그만두는 법>이 노동 에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책은 노동법률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들을 선별해서 모은 '노동법 핸드북' 같은 느낌으로 준비 중이다.

**향후 계획은?**

필드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노동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며 책을 쓰는 일 등은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하나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나름의 사회적 의미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노동변호사로서 명랑하게 생활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객관적이고 제도화된 인사평가 제도 등 노동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book



**<회사 그만두는 법>**  
지은이 : 양지훈

---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는 [프레스리안]의 칼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지은이가 회사생활에 꼭 필요한 실전 노동법과 함께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한 신선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낸 책이다. 지은이는 두 번 퇴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회사라는 조직의 객관적 실체와 일의 의미, 동시대를 버티고 있는 회사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풍경을 짚는다. 아울러 회사를 그만둘 때 필요한 법 조항과 실제로 사직의 과정에서 알아두면 요긴한 법을 소개한다.



issue 01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서울대 로스쿨팀 수상 휩쓸어

지난 4월 5일(금)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령안을 출품·심사받는 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총 351명(116팀)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의 법령을 제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차지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 외에도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상-서울대 로스쿨팀, ▲최우수상-서울대 로스쿨 2팀, ▲우수상-서울대 로스쿨팀, ▲장려상-성균관대2팀, 서울대 로스쿨 2팀, 연세대 로스쿨팀, 동국대팀)



issue 02



무분별한 변호사 증원 반대한다 vs 그 어떤 전문직도 후배 숭독 조이는 선배 없었다

지난 4월 22일(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사 지역 정리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로스쿨 단체들이 대한변협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와 '대한변호사협회 규탄'을 주장하는 맞불집회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등이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우협회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로스쿨 교육이념과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자격 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issue 03



제8회 변호사시험 1,691명 합격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905.55점 이상인 자 1,691명으로 결정하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78%로 제7회 시험 49.35%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자격시험이라는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합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합격률	성별	전공별
합격	1,691 명(50.78%)	남성 935 명(55.29%)	법학전공 698 명(41.28%)
불합격	1,639 명(49.22%)	여성 756 명(44.71%)	법학 비전공 993 명(58.72%)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안내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의 필수요소로 활용된다. 원서접수는 5월 27일(월)부터 6월 5일(수) 18시까지이므로, 접수 기한을 놓치지 않게 유의하자.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9.05.27.(월)~06.05.(수)	원서접수	http://www.leet.or.kr
2019.07.01.(월)~07.14.(수)	수험표 교부	
2019.07.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9.08.14.(수)	성적 발표	http://www.leet.or.kr
2019.08.30.(금)~08.31.(토)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학교 체육관



# 1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월 2일 (화)부터 30일(화)까지 법학적성시험 (LEET)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설명회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여 문전성시를 이뤘다.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는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들에게 시험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전문협의회가 매년 4월에 개최하는 대대적인 행사이다. 설명회는 올해 7월 14일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소개와 시험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는 전국 12개<sup>1)</sup>의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사업단 관계자는 전국순회 설명회의 핵심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시험영역 소개를 비롯해 각 영역별 특징과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등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직접 법학적성시험 기출 문

1) 참여교: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홍익대



연세대학교 광복관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모습('19.4.2)



설명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오성근 원장('19.4.23)

### 2019 LEET 시행결과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별도의 준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설명회 당일 학생들과 함께 법학적성시험 기출문항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사업단 관계자가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포스터



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한 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이 많았다.

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과 공부 방법, 학생부 성적의 반영 비율, 법학적성시험 당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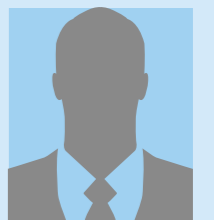
### Mini interview

Q. 설명회 참석 계기는?

A. 올해 법학적성시험을 보려고 계획 중인데 마침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Q. 설명회가 도움이 되었나?

A.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추리논증 영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까지 들었거든요(웃음). 그런데 오늘 추리논증 영역도 '독해'능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네요.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명회 참석자 오경수 학생

\* 설명회 당일 배포된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지난 4월 16일(화) 법학전문대학교수협의회(이하 '법전문교수협의회')는 변호사 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법전문교수협의회는 4회 연속으로 토론회를 기획해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발제 ① 로스쿨 10년: 수(數) 통제의 역사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전문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지난 로스쿨 10년은 변호사 자격자의 수를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수 통제'의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남는 근거는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수를 미리 정하자'라고 하는 순간 로스쿨의 취지는 몰각되고, 합리성 없는 힘겨루기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가벼운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 발제 ② 변호사시험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최근 미국의 동향 분석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근 미국의 많은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통합 변호사시험(Uniform Bar Examination: 이하 UBE)'은 전 주에 공통되는 객관식 시험 MBE, 사례형 시험 MEE, 그리고 기록형 시험 MPPT로 구성된다. 최근 5년 내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한 결과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적절하게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며, 수험생들이 그 준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험이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대비 수험용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우리나라 법전문에서도 법률가로서 생각하는 법을 비롯해 세부적인 전문법과목을 더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의 법률가를 배출해야 한다.



### 발제 ③ 법률서비스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로스쿨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배경 분석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전문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누적되고 있는 법정정보들은 제대로 된 지식관리체계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훌륭한 자원의 노릇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영미의 대형로펌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분점하며 또는 그 시장의 틈새를 어떻게 창출하고 또 확보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답 역시 현재와 같은 작은 규모의 변호사체계로는 찾아질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법률가체제를 지배해왔던 '적정 수'의 담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 토론 ①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현행 변호사시험의 운영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변호사시험 준비로 왜곡시키고 있으며, 로스쿨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토론 ② 이성진 기자(법률저널)

로스쿨 제도 출범의 목적 중 하나가 신규변호사 배출 확대가 국민의 요구이자 합의라면 특히, 법조인이 되려면 최소한 대학은 나와 대학원(로스쿨)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시대적 요청이라면, 선제적으로 로스쿨을 경쟁체제로 전환, 입구의 확대를 통한

기회평등과 자율경쟁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출구(변호사시험)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 토론 ③ 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미국 로스쿨 제도에도 인가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고 특히 출구(변호사 자격 취득)의 통제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해놓고 이를 늘리지는커녕 오히려 이중적으로 앞뒤(로스쿨 입학의 문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문')를 다 틀어막고 있어 로스쿨 교육이 심각하게 파행된 것이다.

### 토론 ④ 이경수 회장(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 수급을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정하고 출구단계의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도입하였으므로, 변호사시험은 필연적으로 저부담평가로 도입되어야 한다.



## 법조계도 유튜브 전성시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연예인에 준할 만큼 높아졌다. 수십억대의 연봉을 받는 크리에이터부터 1인 방송을 바탕으로 각종 기획 상품까지 만들어내는 '스타 크리에이터'까지.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법조인들도 유튜브에 발을 담고 있다.

### 김변

- 김지수 변호사
- 구독자 수: 126,671명



변호사 업계에 유튜브 바람을 몰고 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지수 변호사다. '김변'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김지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변호사로서 첫 출근을 하는 모습, 프로필 촬영 현장, 구치소 접견 가는 길 등 변호사 김지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혼술, 먹방 등 자연인 김지수의 모습도 함께 녹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구독 TIP** 젊은 크리에이터답게 센스 있는 자막과 영상은 보기만 해도 엄마미소 짓게 한다. #예쁨주의

### Dr.Law 이윤규 변호사

- 이윤규 변호사
- 구독자 수: 67,381명



유튜브에서 Dr.Law로 통하는 이윤규 변호사는 26세의 나이로 9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과 같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후배 법학도들을 위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스타 강사 못지않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공·형·민법을 마스터할 수 있는 강의부터,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비법학자를 위한 맞춤형 기본강의, 변호사시험 대비 특강까지 법지식을 전수하는 동영상들이 즐비하다. 'SES 슈 국내도박이 무혐의인 이유', '경비원 폭행 뇌사, 살인죄가 안 된다고?'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법학사전(알쓸신법)'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독 TIP** 오늘 좀 놀았다 싶을 때 볼 것. 3시간만 자고 공부해서 시험 합격한 썰 들으면 후회 밀려옴. #반성하고싶을때



### 로이어 프렌즈

- 이경민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 구독자: 24,896명



법을 1도 모르는 친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는 컨셉으로 3명의 변호사가 뭉쳤다. 주제도 다양하고 재미있다. '변호사가 말하는 정준영 형량은?', '술집에서 시비 붙었을 때 대처 방법', '검사 권력은 어느 정도인가?' 등 일반인으로서 알고 싶은 법 상식을 3명의 변호사가 주거나 받거나 설명해준다. 개성 넘치는 삼인방이 각자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다소 무겁고 거리를 두고 싶은 법률도 친근하게 느껴진다.

**구독 TIP** 변호사 3인방의 브로맨스와 케미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능잼 #안구정화

### 차산선생법률상식

- 박일환 변호사
- 구독자: 18,325명



박일환 전 대법관의 '차산선생법률상식'은 전직 대법관이 운영하는 유튜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세련된 배경화면이나 배경음 없이 오로지 박 전 대법관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수 십년간 법조계에서 쌓은 내공과 해안이 집약적으로 담겨있어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 매매계약',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녹음은 정당인가?' 등 주제도 다채로우며 얻어갈 것이 많다.

**구독 TIP** 실버 유튜버이자 전직 대법관의 유튜브에는 악플이 없다! #댓글청정지역

# 거짓말의 미학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공보위원

남기엽 변호사

현업에 있다 보면 늘 접하는 게 거짓말이다. 형태도 다양하다. “변호사님, 제가 다음주엔 꼭 수입료 갖다드릴게요”라는 생활형부터 “저는 정말 사기치지 않았어요. 중국산 도자기는 30억짜리가 맞아요”라는 중국귀족형, “제가 진짜 음주운전했다면 뛰어내리고 말지, 여기 있겠습니까?”라는 사생결단형까지.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함이 맞다. 따라서 변호사는 가능성만 있으면 최대한 파고들어 의뢰인을 보호한다. 그게 직업윤리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 “만약 네 의뢰인이 죄를 지었다는 의심이 들면 어떡해?” 변호인이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나면서도 맥이 풀릴 때가 있다.

얼마 전 만난 A는 자칭 그림 전문가이다. 청나라 말기를 풍미했던 우창쉬(吳昌碩 1844~1927) 화백과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제백석(齊白石 · 치바이스 · 1864~1957)의 그림을 어렵게 들여와 100억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위작을 팔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단다. 중국어를 할 줄 아냐 하니 모른다 했다. 미술을 전공하셨냐 하니 씨름을 했단다.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을 물으니 오락실을 운영했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명화가들의 그림을 입수했냐고 물으니 동대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형’이란 분이 발이 넓어 들여왔다고 했다.

그래서 질문했다. 보험은 들고, 감정은 하셨냐고. 그는 당황했다. 아마 고가의 미술품은 들여올 때 외국계 재보험사들에 요율을 의뢰해 보험액이 평가되고 엄격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짐을 모르는 듯 했다. 1%의 가능성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변론을 할 수가 없다. 정중하게 돌려보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열 가지 거짓말이 그것을 위해 또 필요하다. 열 가지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능력을 요구한다. 첫째, 모든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예외 현상을 제거해야 하며 둘째, 그것들을 인과적으로 끼워 맞춰야 하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배짱(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배짱이 있어도 상황이 연결되지 않으면 거짓말은 탄로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말해도 불안해하면 심증의 뒤끝을 너무 크게 남기게 된다. 따라서 거짓말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상황의 틀 자체를 다시 짤 줄 알아야 하며 일체의 예외 현상이 없도록 치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게다가 충분히 뻔뻔해야 한다.

일상대화는 열 마디 중 한 두 마디가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넘어가기 쉽지만 거짓말은 열 마디 중 한 마디만 맞지 않아도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와 나의 ‘논리게임’이며



거짓말의 매력은 당신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기회를 잡아내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없던 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술(前述)한 배경정보, 논리, 배짱이 결합된 거짓말은 연역 귀납적으로 점검해도 완벽하기 때문에 듣거나 보는 사람은 이를 믿지 않을 재간이 없고 결국 이 거짓말은 그들에게 ‘나로 인해 태어난’ 진실이 된다.

‘심리테스트’이기도 하고 최대한의 정보로 무장(武將)한 총성 없는 전투다.

그렇기에 거짓말은 당신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치밀한 논리, 배경, 정보를 갖추는 훈련이 되며 두둑한 배짱을 심어준다. 거짓말을 연습하고 실전에 써먹으면서 익힐수록, 당연하게도 상대의 거짓말을 전보다 수월하게 잡아내고 타진한다. 거짓말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거짓말했다. 어쩔래?”라 말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압도적 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거짓말의 매력은 당신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기회를 잡아내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없던 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술(前述)한 배경정보, 논리, 배짱이 결합된 거짓말은 연역 귀납적으로 점검해도 완벽하기 때문에 듣거나 보는 사람은 이를 믿지 않을 재간이 없고 결국 이 거짓말은 그들에게 ‘나로 인해 태어난’ 진실이 된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수많은 것들로 얽힌 이 세계에 대해 우리는 진실이건 거짓말이건 전부 진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말은 진실이기도 하다. 이게 거짓말의 미학이다.

사족: 경험상 수학 잘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잘한다.



# 과거(科擧)를 죽여야 로스쿨이 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주)이마트 디지털가전 CAT, AS 바이어  
-해링본 컴퍼니 해외소싱팀  
-現 법률신문 기자

왕성민 기자

지난 2014년 경찰교육원은 전국 경찰 6,18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화로 '부당거래(류승완 감독·2011작)'가 뽑혔다고 밝혔다. 이 영화에는 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경감)역을 맡은 황정민 씨가 검사역을 맡은 류승범 씨에게 속옷 차림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황정민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류승범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른다.

영감(令監).

조선시대 중2품, 정3품 당상관을 부를 때 쓰던 말이다. 정2품 이상 판서나 정승은 대감(大監)으로, 임금은 상감(上監)으로 불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감은 점차 고위직 공무원이나 나이 많은 남성을 존대하는 말로 바뀌었다. 외연이 넓어진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을 영감으로 부르며 예우하는 문화가 고착화 됐다. 순박한 민초들 눈에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한 '지체 높으신 분'으로 보였다. 이 관습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급기야 대법원은 1962년 일선 판사들에게 영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땅에서 마지막 왕조가 문을 닫은 지 100년이 훌쩍 지났다. 그럼에도 봉건적 잔재인 이런 호칭이 최근까지 쓰였다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 이는 단순히 '올바른 용어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현상 너머에는 고리짝 같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정서가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과거 제도'와

'고시(考試)'에 대한 향수가 배어있다. 모두 반(反) 민주적인 엘리트주의 산물이다.

고시 문화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불신하며, 법률가가 희소하던 시절 누렸던 특권이 사라져가는 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표면적으로는 '법조인의 질 저하'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고



시 합격이라는 통과의를 통해 만들어진 '신분제'를 지키려는 반동, 즉 백래쉬(Backlash)다.

## ◇ 한국식 통과의례, 과거제도

과거시험은 수문제 개황(開皇) 7년(AD. 587년)에 처음 실시된 기록이 나온다. 한반도에서는 고려 광종 9년인 958년, 쌍기의 건의로 본격 시행됐다.

과거시험이 우리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시기는 조선시대다. 늦은 밤 의관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선비가 호롱불 아래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는 이미지는 한국 문화에 각인된 특유의 알레고리(Allegory)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단 33명만 뽑는 대과에 급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부정기적으로 알성시나 증광시 등 별시(別試)가 치러졌지만 대부분의 유생은 평생 글공부만 하다 '학생부군신위<sup>1)</sup>'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선비들은 불나방처럼 과거시험에 매달렸다. 공부하다가 산을 당진하고, 목숨까지 잃어도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형보다 과거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정거형(停

擧刑)을 더 두려워했다.

이원재 연세대 교수는 조선시대의 과거몰입 현상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과거공부를 알아야 우리교육이 보인다'에서 과거가 양반이라는 신분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정당화 기제로 이용됐다고 설명한다. 과거합격이라는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양반'으로 대접받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고위관료의 자제로서 과거를 보지 않아도 벼슬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홍패'에 집착했던 점을 볼 때, 이 견해는 설득력을 얻는다. 음서를 통해 수령이 되면 가문의 후광이나 재력과 상관없이 "과거도 통과 못한 사람이 무슨..."이라며 따돌림을 당했고, 아전들조차 고개를 흔들며 뒤로 비웃었다고 한다.

비늘구멍 같은 신분획득(또는 상승) 제도를 만들고 이를 거친 사람에게만 특권과 혜택을 부여하는 문화는 거의 모든 문명에서 발견된다. 통과의례는 1%의 지배층이 99%의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로 주로 활용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제도'가 그 역할을 맡은 셈이다.

사법시험 체제가 성문법 국가에서의 법조인 양성에 안성맞춤이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로스쿨도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질은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시각의 문제다.



1)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은 유생들의 위패에 쓰는 말.

◇ 변호사 수(數)의 확대가 두려운 이유

과점 체제는 지배계층의 수(數)를 통제하면서 공고해진다. 지배층의 숫자가 늘어나면, 통제력과 영향력은 반감된다. 대중들에게 권력으로 작용하는 신비감과 희소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2~3% 남짓했던 양반 비율은 임진왜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왕조 말기에는 거의 70%에 육박했다. 그 결과 양반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했다. 이때부터 ‘이 양반’, ‘저 양반’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의미로 전이됐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각국도 18세기 이후 극심한 귀족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었다. 영국은 작위(Title)와 영지를 장자에게만 100% 상속시킴으로써 귀족의 수를 통제하는데 성공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곳곳에 귀족들이 넘쳐났다. 한때는 “프랑스 남자의 절반이 남작”이라는 말까지 회자될 지경이었다. 이 시기 많은 귀족의 삶은 평민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고, 덕분에 귀족에 대한 대중들의 환상도 깨졌다.

공산주의 이론가 마르크스(Karl Marx)의 부인 예니 폰 베스트팔렌(Jenny von Westphalen, 1814~1881)은 독일 귀족 출신이었는데, 영국 땅명지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무렵에도 ‘마르크스 부인, 구성(舊姓) 베스트팔렌 여남작(Baroness Westphalen)’이라는 자수가 새긴 명함을 들렀다고 한다.

수와 지배력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기득권은 자신들의 순혈을 보존하고 수를 통제하기 위해 애쓴다. 법복 입은 귀족인 법률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원 관리와 시험제도를 통해 과소공급 구조를 고착화 시키려 한다. 법조인 수가 늘면, 자신들의 가치가 희석된다고 믿는다. 국민의 이익보다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논리다.

◇ 로스쿨 출신이 실력이 없다고?

사법시험 체제가 성문법 국가에서의 법조인 양성에 안성맞춤이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로스쿨도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질은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시각의 문제다.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대 ‘법학’지(紙)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김정연(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1999년 대입수능에서 인문계 전국수석을 차지했다. 이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는 인천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도 갖췄다.

이선미(변호사시험 1회) 의정부지검 검사는 과학고를 나와 의대를 조기 졸업한 다음 최연소 개업의로 주목 받았다. 이후 진로를 바꿔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 검사로 임관했다. 지난해에는 의료분야 전문검사로 선정돼 대검찰청으로부터 ‘블루벨트’를 받았다.

모두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다. 법조계 곳곳에는 탁월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이들이 사법시험 출신과 비교해 부족한 것은 단지 경험뿐이다. 그럼에도 로스쿨 출신에 대해 ‘실력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예단을 갖고 안 좋은 사례만 취사선택해 보고 들었을 확률이 높다.

◇ 변호사시험 자격화 이뤄야

변호사를 신분으로 -그것도 지체 높은 양반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변호사 시험을 최대한 어렵게 출제하고, 합격률도 낮춤으로써 로스쿨 제도를 고시처럼 만들고자 한다. ‘수(數)의 통제’와 ‘통과의례 만들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만일 변호사시험 응시정원과 합격률이 모두 줄어든다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세스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자연스레 몰각되는 셈이다. 처음부터 ‘엘리트 계급’ 양성을 목적으로 한 고시 제도와 ‘자격증을 갖춘 시민의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로스쿨은 골격을 달리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 체제를 선택했다면 교육 제도 뿐 아니라 시험 제도와 가치관도 이에 부합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들도 법률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으며, 더 이상 자신들이 특권계급이나 ‘선별된 엘리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과거(科擧)에 사로잡힌 과거(過去)를 깨는 일이다. 지난한 과정이지만 보다 나은 법조계를 만들기 위해 학계·법조계가 모두 동참해야 할 과제다.



##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 인턴활동을 마치며 - 법무법인 세종 하노이 사무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장예담

### 자문 업무와의 만남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인지 변호사 업무를 떠올리면 대부분 법정에서 멋지게 변론하는 송무 업무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송무 업무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었는데 변호사의 업무는 송무 뿐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학기에 들었던 Legal English 수업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한국 변호사이고 클라이언트는 프랑스 법인과 한국 법인의 합작 법인으로 마카롱 제조 공장을 베트남에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이며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궁금해 할까요?”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평소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대로 학생들은 생각나는 내용을 편하게 꺼내놓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에 교수님은 하나 하나 추가 질문을 하셨고 결국에는 모두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토의한 내용이 국내 대형 로펌 인턴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대답한 내용으로 로펌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만족스러운 대답을 했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의 정체에 당황한 저는 유인물을 다시 읽으며 제 대답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인턴이었다면 로펌에서 내 대답을 만족스러워 했을까...’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도 인턴이 되어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외국에서 한국 클라이언트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자문 업무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수업에서의 이 질문이 제가 변호사의 업무를 송무에서 자문으로 확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수업이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실무수습에 지원할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던 중 친구의 너도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말에 수업시간의 경험이 떠올라 법무부의 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고 몇 주 후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 해외인턴 프로그램 선발 과정 소개

법무법인(이하 로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해외 인턴 프로그램의 전반적



인 채용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법무부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국내, 국외 로펌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뒤 메일로 서류 합격 통지가 옵니다. 저의 경우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한 곳에서 각각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 화상전화로 영어 면접을, 전화로 우리말 면접을 각각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로펌 측과 협의하여 인턴 기간을 정하고 출국하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인턴이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험기간에 서류준비나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험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식힌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여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권을 사는 기분으로 두근거리며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 국내 로펌의 베트남 진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진출하거나 외국인 투

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에 자본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개방 정책 기조에 따라 그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로펌들도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만 실질적인 경제도시인 호치민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대부분 호치민에 먼저 진출하고 안정되면 하노이에도 사무실을 내는 식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많은 곳에 로펌이 할 일도 많기에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역시 호치민에 먼저, 하노이에 두번째 사무실을 많이 개설합니다.

### 법무법인 세종 하노이 사무소

제가 다녀온 법무법인 세종의 하노이 사무소 역시 생긴 지 1년이 갓 지난 새 사무실이었습니다. 하노이 사무실은 한국인 변호사님 한 분과 베트남 변호사 두 분, 그리고 베트남 현지 스태프 2명의 작지만 알찬 구성이었습니다. 인원은 적으나 모두 하노이 뿐 아니라 호치민에서의 업무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이셔서 호치민 사무소와의 협업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다른 로스쿨생 한 명과 함께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인턴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단한 일을 안 주셔도 좋으니 우리의 존재를 잊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며 의지를 불태웠는데, 다행히도 인턴 끝나기 직전까지 야근과 잔업을 하며 자문 업무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했던 업무는 문서 번역부터 베트남 변호사님과의 협업까지 다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계약서나 내규 등을 번역하고 베트남법과 비교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리서치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 변호사님들은 영어와 베트남어가 가능하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클라이언트가 한국어로 질의를 하면 제가 번역하여 베트남 변호사님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한국 법령을 찾아 영어로 번역하여 베트남 변호사님들이 영어로 번역한 베트남법과 비교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체제가 다르다보니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부분을

찾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저의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1학년때 상법 총칙과 회사법을 수강하고 갔는데 상법에 관한 기초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구조와 그 법령을 찾아보는 방법 등이 비교적 수월하여 리서치의 효율성 증대에 유용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로펌은 호치민에도 사무소가 있고 세종 사무소도 그러합니다. 제가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호치민 사무소에도 인턴이 한 분 계셔서 인턴 세 명이 협업하여 과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과제는 변호사님이 예전에 만드신 PPT 발표 자료를 최근 시행령과 개정된 법조문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 과제를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변호사님이 감탄하시며 요즘 후배들이 너무 쟁쟁해서 나도 자극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에 뿌듯해서 주말 내내 고생했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베트남 공기업에 대한 PPT 발표자료와 세종에서 발간하는 Article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며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로스쿨 1년을 겨우 마친 제가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 이야기도 들어보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호치민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



님, 베트남 변호사님과 토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들이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경청하시고 또 존중해주시면서 토론하는 과정이 매일 하면서도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 해외 사무소 인턴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법무법인 세종 하노이 사무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점이 있다면 리서치 능력과 영어, 그리고 팀워크입니다.

저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Legal English 수업의 교수님이 베트남 전문가이셔서 베트남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토지소유 제도나 외국인 투자제한제도 등의 기본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틈날 때 마다 혼자 검색해서 공부하곤 했는데 베트남법이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 많지 않아 리서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만 잘 해도 일이 절반으로 줄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리서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할 줄 알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공용어인 영어라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영어를 쓰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가끔 기초적인 실수를 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법공부를 하며 영어에 대한 감각을 놓지 않기가 쉽지는 않지만 언어라는 것이 금방 잊다가도 또 금방 떠오르는 만큼 영어에 대한 감각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업무를 보조하며 든 생각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문이나 송무 모두 프로젝트성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팀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면 많은 양의 일이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근사한 태도 보다는 업무 전체를 관망하는 시각을 가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다녀온 법무법인 세종의 사무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계셔서 제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 지에 대한 롤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합격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할 때는 기대했지만 막상 속으로는 자신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턴이 끝나고 나니 한발짝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기대하지만 자신이 없는 다른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용기내서 글을 썼는데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상욱

### 1. 들어가는 말

초시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재학 시절 우수한 성적을 낸 것 역시 아니라서 합격수기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범에도 미치지 못했던 비법학도의 경험이 아직 수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습니다.

어떤 팁이나 경험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본 수기에 적힌 저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합격자 분들의 수기와 공부방법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과 스타일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2. 재시를 준비하던 시기

모든 실패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시의 실패를 기록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7회 변호사 시험 발표가 있는 4월까지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낙방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기에 시험장에서의 문제되었던 태도나 막판 시간관리에 실패한 요인, 부족했던 부분 등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정리해두었습니다.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역설적으로 재시를 준비하는데 자신감을 북돋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6일 본격적으로 재시 준비에 들어갑니다.

### 3. 선택형 대비 학습전략

초시에서 선택형에 특히 발목이 잡혔으나 사례형의 배점이 가장 큰 만큼 사례형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선택형 교재의 경우 모의고사는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오로지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만으로 구성된 교재들을 선택했습니다. 8개월 남짓한 수험기간 동안 이미 7개년의 기출이 쌓여있는 변호사시험 지문들을 분석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당해 년도 시험문제까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다만, 사례형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택형의 중요판례 및 사례화가 가능한 판례들을 따로 표시해두고 암기장의 목차들을 이용하여 선택형 문제집

에 목차를 따로 가필해두는 등 변시 기출 지문들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암기장이나 기본서를 동시에 펼쳐두고 비교판례나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그때그때 정리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선택형 교재의 정리 작업은 조금 부담을 버리고 12월 둘째 주까지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선택형 교재는 수험 막판 여러 영역에 동시 활용이 가능하므로 회독수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ip)** 8월 이후부터는 최신판례집도 동시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둘째주 이후 시험 전날까지 약 3주의 기간 동안 전 과목 선택형 교재 및 최신판례집을 각 4회독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택형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막판에 많은 내용을 눈에 발라두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눈에 익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 4. 사례형 대비 학습 전략

막판에는 사례형도 위에 서술한 정리된 선택형 교재 및 최신판례집으로 대비하였지만, 10월 모의고사 직전까지는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내어 사례(변시 및 사시 기출)를 직접 써보았습니다. 이 역시 모의고사는 큰 의미 없다는 판단을 하여 풀어보지는 않고 미기출된 중요 판례 위주로 체크만 해두었습니다. 기출 사례를 직접 써본 이후에는 해설서는 참고만 하였고 주로 암기장에 목차 구성이 잘못된 부분, 오해한 부분, 누락한 부분 등을 그 이유를 설시함과 함께 체크했습니다. 암기장의 표현들은 시험장에서 그대로 현출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므로 저에게 익숙한 표현과 이해의 순서대로 내용을 수정하고 재배열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하며 책을 정리했습니다.

**tip)** 사례는 외운 것을 그대로 써내려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집이나 암기장의 목차 순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연습을 할 때도 외운 것을 토해내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해답을 구해내고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논리적 과정을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설문을 재구성하여 사안의 포섭에 활용하고, 이러한 사안의 포섭에 문제에서 주어진 배점의 30%를 할애하는 연습을 통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의 모든 영역에서 55~70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하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선택형 점수에도 1,000점 이상 득점하였으므로 이 방법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 5. 시험장에서의 태도

초시에 시험장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음식을 가려먹지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치른 탓에 많은 부분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마음



을 편하게 먹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공부를 하였고, 음식도 되는대로 먹되 맵고 짠 음식만 피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씻고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아까웠지만, 스스로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아침마다 머리를 드라이하여 매만지고 시험장에 갔던 기억도 납니다. 시험장에서 각자 자신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6. 나가는 말

간절히 원했던 시험에 합격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실감이 나거나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의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할 때 구조적 모순에 마음이 아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네요. 이 글을 참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그러한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기록형 준비 방법 등 많은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참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ihorizon@hanmail.net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론 능력으로 승부하라!

##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는  
모의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47개의  
참가팀 중 8개팀이 본선에  
올라 변론 실력을 겨뤘다.

### 〈사안〉

2013년 12월 21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 원내 제1야당인 공정사회당 후보 김영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수는 그의 장모이자 중견기업 '변영철강'의 대표인 이영희와 그 일가의 인적, 물적 지원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오랜 기간 야당 지도자로서 정치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야당 정치인들의 SNS나 방송보도 등을 통해 이영희 일가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막후 실세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부정과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의혹 규명 및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고, 결국 5백 억 원을 이영희가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영희 일가는 뇌물수수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회는 여야합의로 '김영수 대통령 친인척관련 권력형 부정부패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17년 12월 29일에 공포되었다. 위원회에서 5백 억 원의 국가귀속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영희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근거가 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이영희는 서울행정법원에 권력형 부정부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

아래 1.과 2.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변호사인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하시오.

1. 이영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작성 일은 2018.10.18.로 하시오(단, 적법요건은 논하지 마시오).
2.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작성 일은 2018. 12. 20.로 하시오(단, 적법요건은 논하지 마시오).



대심판정 1차 변론 현장



제5회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단체사진

<b>위헌 측 주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청와대 관계자'와 같은 일부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li> <li>•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예외의 사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또한 위반되었다.</li> <li>•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이 위반되었고, 과도한 증명 책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역시 침해되었다.</li> <li>• 결론적으로 이영희의 부패 스캔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의 유지를 통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li> </ul>
<b>합헌 측 주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헌 측에서 문제 삼은 애매한 표현의 경우 유추를 통해 범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별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li> <li>• 역사 속의 선례를 봤을 때 이영희 일가는 충분히 자신에게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환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으로는 몰수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영희의 모든 재산이 아니라 부정부패 행위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li> <li>• 결론적으로 신뢰가 없는 국가는 바로 설 수 없으며 해당 특별법은 국민의 신뢰를 끌어내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고 있다.</li> </ul>

### ■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수상팀 명단

상명	수상팀	팀원
헌법재판소장상	헬러팀(서울대학교)	조영민, 정재하, 홍준기
금상	헌신팀(연세대학교)	신소현, 공광희, 고명신
은상	오후 네신팀(서울대학교)	홍혜인, 홍서현, 김병국
	수기치인팀(성균관대학교)	주은정, 심지현, 김다솜
동상	착한 사마리아인팀(중앙대학교)	김민주, 신재연, 박재현
	슈슈팀(서울대학교)	지은수, 류혜비, 이현영
	공명팀(서울대학교)	이계민, 임서영, 전수연
외유내강팀(성균관대학교)	오지수, 신비원, 민애리	
우수변론상(개인)	신소현 학생(연세대학교)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재판장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지급되었으며, 금상, 은상, 동상, 우수변론상 수상자에게도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다.



Mini interview

#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서울대학교 로스쿨, 헬러팀  
(조영민, 정재하, 홍준기)  
미니 인터뷰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정말 우연히 모의헌법재판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둬서 매우 기쁩니다. 본 대회 덕분에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헌법과 국가를 고민할 절호의 기회를 주신 대회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3명이 함께 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로스쿨은 10명씩 한 조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같은 조원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팀명 '헬러'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팀 이름은, 존경하는 법학자,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를 연구했던 바이마르 공법학자 헤르만 헬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헤르만 헬러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법학자들과는 달리 바이마르공화국과 헌법을 끝까지 옹호하고 지키려 행동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5회 경연대회의 문제를 본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경연대회의 문제는 부정부패를 통해 축재한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소급입법이 위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보자마자 친일재산환수법 판례(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결정)와 BBK 특검법 판례(헌법재판소 2007. 12. 31. 선고 2007헌마 1446 결정)가 떠올랐습니다. 위 두 판례의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

계를 비교해가면서 쟁점을 정리해보니, 1)소급입법금지원칙, 2)과잉금지원칙, 3) 권력분립원칙 등이 주요 쟁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 있어서는 국회 입법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간 국회의원들은 부정축재 재산의 몰수와 관련된 여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보고서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자료에서 논의된 쟁점을 변론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변론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홍준기, 조영민, 정재하)



1차 변론 중인 헬러팀



수상소감을 전하는 헬러팀 정재하 학생

**다른 팀과 차별화된 헬러팀만의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 2, 3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을 대회 준비에 할애했는데, 처음에 쓴 변론서를 자꾸 고치면서 점점 내용이 좋아졌고, 또 처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업을 효율적으로 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변론서의 양이 많고 내용도 워낙 방대하다보니,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변론의 통일성 및 완결성을 위해서는 각자가 변론내용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러한 협업이 결과적으로 좋은 변론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6회 대회 출전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 저희 팀원들의 헌법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좋은 팀원들을 만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 성적이 좋지 않다고 참가를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나 보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경험은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설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참가를 권해드립니다.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 변론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로는, 최대한 간결하게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번 말할 때 가능한 한 가지 포인트만 언급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하면 각 내용이 뒤섞여서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변론이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대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변론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체력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대회 2, 3주 전부터는 정규학기 때보다도 더 바쁘게 보내야 했고, 방학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에 모여서 대회를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어떻어떻 어려와도 조들지마랑 살당보민 살아진다게!

김근현 학생은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지던 해에 법학과에 진학했다. 꽤 오랜 시간 법학과 동고동락한 그가 로스쿨에 진학한 것은 공부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뜻한 5월의 봄, 제주에서 그를 만났다.

###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파산, 법인 및 부동산등기, 집행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앞에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있고, 각종 소송구조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변호사사무실의 문턱이 높아 보여 아쉬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의뢰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로의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 제주대 로스쿨에서의 지난 1년을 회고한다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조교, 리걸클리닉 연구원 등 로스쿨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입학 후 로스쿨 생활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막상 1년을 보내고 나니 생활만 잘하고 방대한 공부량에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웃음). 하지만 제주대 로스쿨에는 이러한 근심을 덜어주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법전원에서 바라보는 제주 앞바다, 천혜의 환경은 어지러운 마음을 평온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동기들과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님들, 언제나 웃으며 지도해주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인디애나 로스쿨, 홍콩, 중국 로펌에서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넓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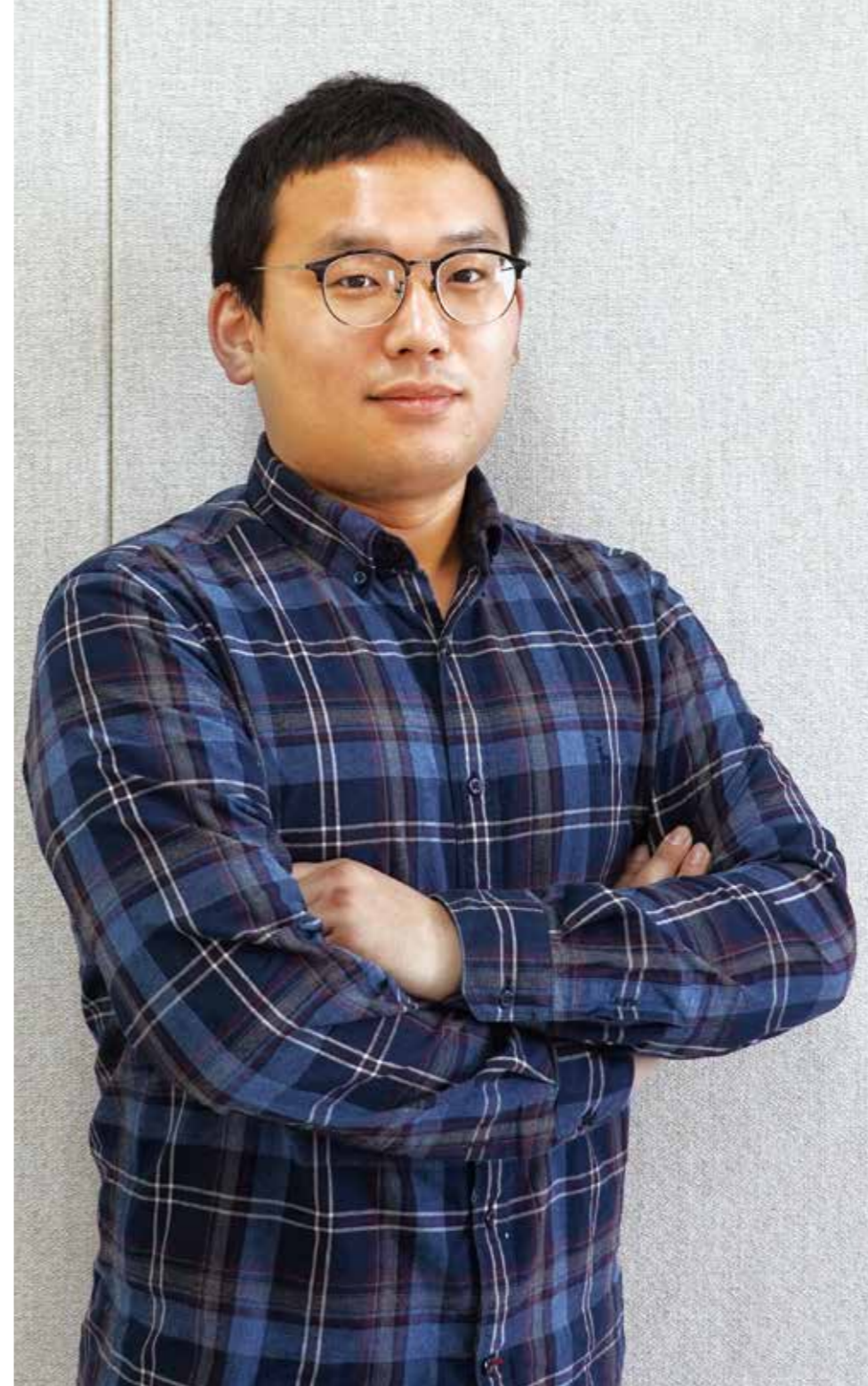
회를 마련해준 제주대 로스쿨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웃음).

### 로스쿨 학생들을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로스쿨 학생으로서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 역시 로스쿨 입학 전에는 막연하게 학비가 비싸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해보니 사법시험 공부를 했을 때보다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입하기 쉬운 시스템은 로스쿨 제도이며, 로스쿨생이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좋은 환경의 기숙사에서 장학금과 교재지원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하고 있으며, 수많은 법학장서가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금수저' 논란이 있을 뿐, 실제로 제가 느끼는 로스쿨 학생들은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 슬럼프를 극복하는 노하우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던 시절 '작심삼일을 삼일에 한 번씩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웃음). 그때의 명언(?)을 지금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가 끝나면 한라산을 등반하며 변화하는 사계절처럼 제 자신도 매일 변화하고 나아지자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  
근  
현  
학  
생



법은 서로를 존중하고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연한 사고와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주는 '좋은 이웃'이 먼저 되고 싶습니다.



찾아보는 등 그동안 공부한 법학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더 흥미롭게 법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아직 거창하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좋은 인성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조인이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조문을 찾아 '법대로'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서로를 존중하고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연한 사고와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주는 '좋은 이웃'이 먼저 되고 싶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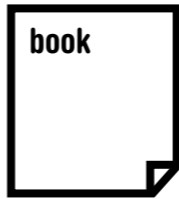
로스쿨은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단, 3년간 눈 딱감고 공부만 할 각오는 되어 있다면요(웃음). 다만 아쉬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합격 후 선행학습을 하면서도 정작 변호사시험의 과목이나 유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입학한다는 것입니다. 입학 전 로스쿨에서 3년간 공부해야 할 과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무슨 과목을 언제 수강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로스쿨 생활을 하다보면 '다들 키클빅을 준비하니까 나도?'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정확히 세워야 로스쿨 생활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막 끝났을 후배님들에게는 3년간 길고 힘들 수 있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법조인은 사건을 대할 때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저력있는 예비법조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어땠어? 어려워도 조들지마라 살당보민 살아진다게!(어떻게든지 어렵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다보면 다 살아갈 수 있다.)

한라일보, 제민일보와 같은 지역신문을 보면서 '제주도 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 '게스트하우스의 스태프 처우 문제' 등 지역사회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데요. 공부가 지칠 때에는 미래의 저의 모습을 꿈꾸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로스쿨 생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문화예술인 등을 직접 찾아가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학생자치법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민자법교육 등 우리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지식 전달을 위해 사례와 관련된 조문을



**법과 미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미술법 안내서  
법, 미술을 품다**



저자는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다. 책에는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저 자 : 김영철  
출판사 : 유진트리  
발행일 : 2019.02.25.  
가 격 : 20,000원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근본규범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법 발전을 이루어가는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헌법사건을 직접 다룬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헌법상의 쟁점을 둘러싸고 오간 주장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그와 더불어 일반적인 판례평석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수행 과정에서의 숨겨진 뒷이야기들까지 소개한다.

저 자 : 법무법인(유) 화우  
출판사 : 박영사  
발행일 : 2018.12.05.  
가 격 : 19,000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소개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무 교수

## I. 들어가며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지역사회 봉사 및 임상법학 실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에 법률상담소란 명칭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30여년 간 학교 구성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 공익소송 지원, 실무 교과목의 개설, 생활법률강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 1. 연혁

- 1981. 4. 13.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부속 법률상담소 설치
- 2011. 5. 20.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으로 개칭 및 규정 전부 개정
- 2012. 2. 12. 법학전문대학원(금호관) 307호로 센터 이전
- 2013. 1. 23. 광주YMCA 시민중계실과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3. 1. 29.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와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4. 7. 7. 광주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와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4. 8. 19. 광주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5. 1. 15.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6. 9. 29.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7. 1. 18.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7. 4. 7.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과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7. 6. 13. 화순 능주고등학교와 업무협력협정체결
- 2018. 3. 19.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력협정체결



법률상담 클리닉 광주 교도소 견학



법률상담클리닉 수업

## II. 주요 활동 내용

### 1. 무료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지역사회를 향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가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전남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교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6건의 대면, 37건의 서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률봉사동아리 '서로' 학생들은 광주 YMCA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YMCA에서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무수습기회를 얻고, 이후 실무가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위 상담사례에 대한 첨삭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5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위 공익소송에 법원원 학생들을 참여시켜 임상교육의 기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클리닉 수업



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 전남 완도군 노화읍

## 2. 지역민을 위한 생활법률 강좌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2018년 하반기에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을 위한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고, 아울러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 가. 지역민을 위한 생활법률강좌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지역민을 위

한 생활법률강좌'를 6회 추진하였습니다. 각 강좌의 주제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알기쉬운 임대차, 수사절차와 인권보호, 교통사고와 법적 대응, 부당해고와 구제, 상속과 유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위 강좌를 개설하였는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생활법률강좌가 끝난 이후에도 수강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9회에 걸친 강좌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2019. 1. 25. 전남 완도군 노화읍(노화도)을 방문하였습니다. 노화도는 5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법무사 사무실 조

차도 없는 무변촌입니다. 노화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걸클리닉센터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4시간 동안 총 9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에도 추가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3. 실무교과목(법률상담클리닉)의 개설 및 운영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법률상담클리닉'이라는 실무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요령, 기록검토 및 법률문서작성, 교도소견학 및 접견요령 등 장차 법조인으로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무적인 사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입니다.

2019년 현재 8명의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겸임교수로 위촉하여 겸임교수 1명당 법전원 학생 5명씩을 배정하여 총 40명이 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바, 위 과목의 수강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 III. 맺음말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는 지역사회를 향한 법률봉사와 공익의식을 갖춘 법조인 육성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여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강좌 2회차 - 알기쉬운 임대차



생활법률강좌 3회차 - 수사절차와 인권보호



생활법률강좌 6회차 - 상속과 유언



#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법학공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

법학은 사회규범의 한 종류인 법을 다루는 학문이고, 법이라고 하는 규범은 국가 권력과 연관되어 사회의 현상 및 인간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삶 또는 사회현상과 동떨어져서 비약적이거나, 법 그 자체가 독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만약 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비약적이거나 법 자체가 목적이라면 대부분 악법이거나 규범력 또는 실효성을 상실한 법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이 법을 읽었을 때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규범 내용의 변화가 적어야 된다. 즉 안정적이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짜뉴스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뉴스제작자는 뉴스공급자로서 하나의

조직이며, 헌법상 언론 자유의 향유기관으로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보도내용에 사실상 공신력이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통신기술의 발달, 뉴스제작 기술의 간편화 등으로 인하여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뉴스소비자가 아니라 뉴스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가짜뉴스는 네거티브 뉴스, 오보, 또는 과실 있는 뉴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내용이 허위인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형용모순(contradictio in adjecto)이다. 뉴스라는 말 속에는 사실 내지 진실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지만 뉴스라는 말 앞에 가짜라는 형용어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제작자가 자신이 만들어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제작하는 것이다. 내용 중 90%가 사실이고 10%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가짜뉴스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뉴스제작과는 달리 허위인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창작해내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정치인,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을 끌만한 사람들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이거나, 어떤 특정 정파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허위 내지 가공의 사실을 만든다. 둘 다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일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왜곡된 정치적 판단 또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반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질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음식과 비교한다면 불량식품이다. 90%가 정직한 식품이거나 재료이더라도 10%가 불량식품이라면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으로서 대부분 민사법상의 불법행위,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이 공적기관에 등록하여야 권리가 발

생하는 것과는 달리 창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창작자가 창작행위를 마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등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발명이거나 상표인 경우에는 특허등록과 상표등록이 거절되도록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서양속에 위반한 발명이나 상표인 경우 등록을 거절하는 취지는 산업적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규범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만일 사회질서에 위반한 발명이나 상표가 등록되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부여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지원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다.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음란물이거나, 위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을 담은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유보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만 하면 권리대상이 확정되고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다른 지적재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저작권의 경우, 창작주의이기 때문에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가짜뉴스를 배포시켜주겠다고 계약하는 행위는 우리 민법 제103조에 해당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만드는 행위를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정직하고도 순수한' 창작행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지어냈기 때문이다. 어쩌면 창작이라는 용어가 예상하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에서는 창작행위를 통한 새로운 권리대상인 저작물이 탄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한다. 현행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설이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사회적 유해성을 강조한다. 민사법이나 행정법, 형법 등에서 이를 비난할 뿐이지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창작물로 보고 보호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법이 사회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일적으로 그것이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저작권이든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모두 무효로 하거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반사회적인 발명이나 상표에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권리설정을 반대하면서, 문화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일까? 다 같은 지적재산권이고 창작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왜 다른 취급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반사회적인 발명이나 상표가 가짜뉴스인 저작물과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 즉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부각된다.

그리고 민사법, 행정법, 형법의 영역에서는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서는 무슨 근거로 규범의 세계 내에서 포용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혹시 법 상호간에 저촉 또는 모순은 아닐까? 또는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 규범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가짜뉴스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가짜뉴스라는 핑계로 정부가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탄압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가짜뉴스와 저작권을 소재로 법학의 일면을 소개했다. 독자 중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어떤 이는 형식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이는 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논의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앞서 소개한 가짜뉴스와 저작권의 문제는 법학을 공부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 분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작권법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법학은 재미가 있고, 우리의 사고능력을 길러주고 사고방식 역시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 즉 생각하는 학문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규범은 인간의 삶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꼭 이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 극심한 피로에 무기력, 성취감 못 느끼는 당신

### 혹시 번아웃 증후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  
 ‘어떤 일을 끝내도 성취감이 안 느껴진다’  
 당신은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다면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의심해봐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마음·정신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한다.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번아웃 증후군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다.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방전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 ◆번아웃 증후군...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 조심해야

번아웃 증후군 환자는 특정한 목표나 대상에 몰입하느라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은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 호르몬이 완화해 주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부신도 지쳐 코티솔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항상성이 깨져 정상세포가 고장 난다. 인체 내 ‘에너지 공장’인 세포가 고장 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채 피로 물질로 쌓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된다.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지만,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이나 성과지향주의, 집착 등은 번아웃 증후군을 유발한다. 성공 후 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삶의 목표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이 특징

번아웃 증후군은 에너지를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 ▲불안감 ▲성취감 저하 ▲공감 능력 결여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불안감이 심해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못 잔다. 마른 사람은 더 마르고, 살찐 사람은 오히려 체중이 는다. 집중력이 떨어져 책이나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한다. 신경성 고혈압,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근육 긴장성 두통, 이명 등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지만, 그 증상을 다른 원인에서 찾기도 한다. 프랑스의 노동사회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사빈 비타유의 저서 <번아웃>에 따르면 여성들은 번아웃 증후군 증상을 ‘인간관계’ 의해 생기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언어나 표정 등을 통해 표현한다. 반면, 남성들은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을 ‘조직의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자신의 번아웃을 인정하지 않고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등 신체적 문제로 이어졌을 때 뒤늦게 깨닫는다. 번아웃 증후군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방해하고 신체적 고통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상태를 잘 관찰했다가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되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는 번아웃 증후군일까

자신이 번아웃증후군인지 궁금하다면, 다음의 10개 항목을 살펴보자.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번아웃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1. 일하기에는 몸이 너무 지쳤다는 생각이 든다
2. 퇴근할 때 녹초가 된다
3.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해진다
4. 일에 부담과 긴장감을 느낀다
5. 일이 주어지면 무기력하고 싫증이 느껴진다
6.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7. 주어진 업무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8. 성취감을 못 느낀다
9.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만 찾는다
10.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잘 느껴진다.

#### ◆뇌 충전 돕는 ‘마인드 바캉스 훈련’ 도움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방전된 뇌를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단순히 오래 쉬다고 해서 뇌가 충전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마음에 자유를 주는 마인드 바캉스 훈련을 하는 것이 증상 해소에 도움이 된다. 마인드 바캉스 훈련은 미국의 실리컨밸리 경영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회의 직전에 세 번 깊게 호흡하며 호흡을 느끼기 ▲조용한 곳에서 밥 즐기며 먹기 ▲하루 10분 사색하며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수다 떨기 ▲일주일에 한 번 슬픈 영화 보기 ▲스마트폰을 두고 여행하기 등이 해당된다.

#### ◆몸 중심 배 중앙에 두고 허리 힘 쥐어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 자세부터 변한다. 팔다리에는 늘 힘이 들어가 있고,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모인 몸 중심부는 약해진다. 그러면 손발이 처지면서 몸이 굽거나, 신체 중심이 한 쪽으로 기운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며, 뼈뺀 하체 서거나 다리를 꼬고 앉게 된다. 배를 앞으로 내밀거나,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도 나타난다. 자세가 나빠지면 중심

을 잡기 위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전신 피로가 가중돼 번아웃 증후군이 악화된다. 반면, 자세를 바로잡으면 번아웃 증후군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우선, 몸 중심을 배 중앙에 두고 허리에 힘을 준다. 그러면 어깨나 목 등의 불필요한 힘이 자연스럽게 빠져서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는 호르몬인 코티솔과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번아웃 증후군이 개선된다. 쉴 때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지 말고, 휴식에만 집중해야 한다.

#### ◆번아웃 증후군에 도움되는 식단

번아웃 증후군은 타액검사를 통해 세포 기능, 부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진단한다. 가정, 친구, 직장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일정표를 짜 주고, 육체와 정신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B 등의 영양제나 식단을 처방한다.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은 아래와 같다.

▲비타민B 풍부한 ‘통곡물·버섯’ = 정제되지 않은 현미·귀리와 같은 통곡물과 돼지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B1과 비타민B12는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능력을 높여 준다. 버섯, 브로콜리에 풍부한 비타민B6는 부신 기능을 정상화한다.

▲저지방·고단백 ‘닭가슴살·콩’ = 콩,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이나 닭가슴살, 살코기, 삶은 계란 등 지방이 없는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를 만들어 피로 물질을 배출한다. 단백질은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로, 정신피로를 푸는데 꼭 필요하다. 단, 굵거나 튀긴 고기와 달걀부침 등은 거꾸로 피로 물질인 활성산소를 유발한다.

▲마그네슘 든 ‘해조류·견과류’ =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다. 부신이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과정에 마그네슘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뭉침, 눈 밑 떨림 등이 나타나면서 육체피로가 생긴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나 견과류를 먹는다.

▲카페인 음료는 끊어야 =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예민하게 해 정신 피로를 일으키고, 만성적인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 번아웃 증후군 환자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자신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른 채 커피잔을 입에 달고 산다. 따라서 카페인을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야 한다.



# 법은 어떻게 선용되고 악용되는가

- 영화 「터미널」 속 법률이야기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 1. 공항생활의 시작

만남과 헤어짐이 어우러진 곳, 떠남과 돌아옴의 장소, 새로운 국가로 들어가는 입구, 여행과 추억이 공존하는 공간, 공항을 일컫는 '터미널'은 미지 세계의 관문이다. 톰 행크스 분의 빅터 나보스키는 생애 최초로 외국여행을 떠났다. 도착지는 바로 미국. 그는 미국의 뉴욕을 방문해 브루클린을 보고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며 뮤지컬 캐츠를 본다는 부푼 꿈을 안고 뉴욕 JFK 공항에 들어섰다. 그런데 미국의 발을 내딛으려는 입국심사대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국 크로코지아에 내란이 발생해 무정부 상태이며

이로 인해 그의 여권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에 엄격한 JFK 공항 출입국 관리국 이사 프랭크 디슨은 빅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귀하의 국가 크라코지아가 전 정부에 의해 발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미국 무부도 입국비자를 취소시켰는데, 설상가상으로 크라코지아로 향하는 여객기운항은 모두 중지되고 새 정부는 국경을 폐쇄시켜서 당신은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재 국적불명의 신분이며, 미국이 귀국과 외교를 수립하기 전

까지 입국심사진행 불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빅터 당신은 망명자도 난민도 아니며 한시적보호대상자도 인도적차원의 입국허가 대상자도 아니어서 입국도 귀국도 안되는 상황이라 머물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국제환승라운지입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주인공이 가진 크라코지아 화폐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에게 주어진 건 공항 출입국 관리국 직원이 전달해준 몇 장의 식권과 15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가 전부다. 공항에 갇힌 주인공은 잃어버린 고국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밤이면 공항대기실에 있는 의자를 붙여 침대로 만든 후 잠을 청하는 그는, 외톨이다.

주인공은 특유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출입국 경찰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다.

빅터가 공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도 친구가 하나 둘씩 생긴다. 인도계 청소부 노인 굽타, 미모의 여성 스튜어디스 아멜리아 워렌 등이 그와 친해졌으며 그의 공항생활 적응능력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이곳저곳에 산적한 공항카드를 제자리에 두면 25센트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공항 구석구석을 다니며 카트를 끌고 돈을 모은다. 끌고 오는 카트가 많아질수록 그는 고가

### 이 달의 영화

Life is waiting.

Tom Hanks  
Catherine Zeta-Jones

The Terminal

⊕

터미널 (The Terminal)  
코미디, 멜로/로맨스 | 2004.08.27. 개봉  
128분 | 미국 | 전체 관람가

동유럽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의 평범한 남자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 뉴욕 입성의 부푼 마음을 안고 JFK 공항에 도착한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를 빠져 나가기도 전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바로 그가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 고국에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유령국가'가 되었다는 것.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빅터. 아무리 둘러봐도 그가 잠시 머물 곳은 JFK 공항 밖에 없다.

## 2. 공항생활의 적응

공항 국장으로 승진을 눈앞에 둔 프랭크는 빅터에게 미국에 입국할 수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신분이기엔 공항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고 안내해주지만 정작 공항 게이트를 12시부터 약 5분간 개방하겠다고 귀뜸해주면서 미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프랭크에게 빅터는 귀찮은 존재이며 제발 눈앞에 사라졌으면 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빅터가 공항을 떠날 수 없는 처지인 점을 잘 알면서도 공항 밖으로 나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구치소에 수감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감시 카메라를 돌리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지만 우리의





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프랭크는 빅터가 카트를 이용해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본 후 승객 지원 운송 연락관이라는 새 일자리를 만들어 그의 밥줄을 끊어버린다. 국장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바는 그가 공항 밖을 나가 밀입국 혐의로 구치소에 투옥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결국 빅터는 다시 굶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를 돕는 이가 나타났다. 러시아 남성 엔리케 크루즈. 공항 식당 조리부에서 일하는 그는 빅터에게 음식을 공수하기 시작한다. 크루즈가 빅터에게 제안한 거래는 심사관 혹은 여성 토레스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 그녀에 대한 정보를 구해달라는 것이다. 사교성이 뛰어난 빅터는 매일 입국 심사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크루즈의 마음을 토레스에게 전해준다.

잔인한 공항 출입국 관리 이사 프랭크는 또 다시 빅터를 부른다. 프랭크는 빅터에게 망명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재판을 제기하되 빅터가 재판 중 고국은 전시 중이며 정치적 박해가 넘치고 있어서 귀국하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빅터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그에게 고국 크라코지아보다 오히려 국장실의 프랭크 이사가 더 두렵다고 대답한다.

변호사가 된 빅터



빅터는 공항의 일상 속에서 사랑도 꽃피운다. 스튜어디스 아멜리아 워렌은 유부남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빅터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식사를 제안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해 당황하는 그는 이제 그녀와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그에게는 페인트칠을 하고 나무를 다듬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뉴욕시 건설사의 현장 소장은 첫눈에 이를 알아보고 그를 고용했다. 오후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그는 공항의 공사현장에서 투입되어 일하는데 그가 버는 시간당 수입은 19\$이다. 프랭크 국장은 그를 처벌하기 위해 FBI에 신고하여 구치소에 수감시키려 하지만 넘쳐나는 범죄자들때문에 거절당한다.

3. 변호사가 된 빅터

어느 날 JFK 공항을 감사하러 온 감사인 20여 명이 찾아왔다. 프랭크는 밀수입품을 가지고 온 현행범을 체포하는 기지를 발휘하는 그 때 처방전 없는 약을 소지한 입국자가 자해 소동을 벌이는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 그는 아버지의 통풍약을 구하기 위해 먼 나라를 찾아왔고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약품소지를 금지받은 것이다. 공항감사를 잘 받아야 하는 프랭크의 마음도 다급해지고 있는데 자해소동을 벌이는 러시아 남성을 통역할 사람이 공항에는 없다. 프랭크는 울며겨자 먹기로 빅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반대급부로 뉴욕 방문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통역에 나선 빅터. 프랭크는 미국에서 약을 가져가려면 약품구입허가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러시아 남성은 아버지의 오랜 통풍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약을 구매하러 왔다고 답한다.

그러나 프랭크는 미국에서는 법적 서류가 무조건 필요하므로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된다고 냉정하게 거절한다. 서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몰랐다고 러시아 남성이 다급하게 답하지만 프랭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와야 한다고 다시 답한다.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 꿇는 그에게 프랭크는 약을 두고 미국을 떠나라고 압박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냉혈한이었다.

이 때 빅터는 묘안을 찾아낸다. 아버지의 통풍약이 아니



라 염소의 약이라고 답하라고 러시아어로 알려준다. (참고로 염소 goat와 통풍gout의 영어발음은 비슷하다.) 빅터는 자신의 고국 크로코지아에서는 염소와 아버지 발음이 비슷해 착각했다고 변명했다. 빅터는 자신의 번역실수라고 둘러댄다. 미국에서 동물용 약은 허가증이 필요 없다. 그의 도움으로 염소약이라고 답한 러시아 남성은 약을 되찾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으로 빅터는 터미널의 일약 스타가 됐다. 그의 별명은 염소사나이. 감사인들이 프랭크의 냉정한 법률적용을 보고 국장승진을 보류시키고 직전의 국장은 그를 질타한다. 규정보다 사람을 주목하고 미국의 근본은 인간애라며 빅터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상점의 점원들은 그를 환영하고 국장은 승진 보류로 그에게 엄포를 놓는다. 승진되기 전에는 뉴욕에 한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고.

4.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는 빅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뉴욕행을 선택한 빅터. 그의 아버지는 재즈 매니아였다. 뉴욕의 저명한 재즈뮤지션들에게 300통의 편지를 보내고 40년동안 답장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베니폴슨 색스폰 연주자를 제외하고 사인을 담은 답장을 받았다. 아버지는 운명했고 빅터는 뉴욕으로 가 직접 베니의 사인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터미널의 생활이 어느덧 9개월이 흐르고 고국의 전쟁은 종결된다.

빅터는 스튜어디스 아멜리아 워렌의 도움을 받아 1일 비

상 비자를 받았는데 프랭크의 입국비자 사인이 필요하다. 신 입국장으로 승진한 프랭크는 빅터의 친구인 공항 조리실의 엔리케가 보안관련 법률을 위반해서 해고감이며, 인도인 친구 굽타 청소부는 수배 중이므로 추방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빅터를 크로코지아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든다. 그러나 청소부 굽타가 노구를 이끌고 크로코지아행 비행기의 이륙을 막아주자, 빅터는 용기를 내 뉴욕 출입구로 향한다. 경찰들 또한 국장의 뜻을 저버리고 빅터에게 뉴욕의 문을 열어준다. 겨울 눈바람이 훑날리는 호텔에서 베니를 만나 사인을 받은 빅터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다.

5. 나가는 말

영화는 동일한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선택되는지 약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공항 국장 프랭크는 빅터를 공항에서 내쫓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공항 밖을 나가도록 유도해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는 등 약용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빅터는 아버지의 통풍약을 고국에 들고가기 위해 애쓰는 러시아 남성을 돕기 위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염소의 약으로 만들어 버린 훌륭한 변호사의 역할을 한 것이다. 국민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법률가의 모습은 프랭크가 아닌 빅터의 모습임이 분명하다. 영화는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인지 자문한다.



🎵 **암흑의 시대, 찬란하게 빛나는 영웅들의 이야기 >>>**  
**뮤지컬 엑스칼리버**

뮤지컬 <엑스칼리버>는 색슨족의 침략에 맞서 혼란스러운 고대 영국을 지켜낸 신화 속 영웅 아더왕의 전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이다. 월드 프리미어로 한국에서 첫 공연을 앞두고 있기에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뮤지컬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일컬어지는 엄홍현 총괄 프로듀서를 필두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작사가 로빈 러너 등이 합류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전설의 성검 엑스칼리버를 뽑아 드는 아더 역에는 배우 카이, 김준수, 도겸이 캐스팅됐으며, 아더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랜슬렛 역에는 엄기준, 이지훈, 박강현이 캐스팅됐다.



- 🕒 **공연기간** 2019.06.15 ~ 2019.08.04
- 📍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티켓가격** VIP석\_150,000원, R석\_130,000원
- 🌐 **홈페이지** <http://www.musicalxcalibur.com/>



<<< **마법의 음악이 담긴 특별한 콘서트**  
**영화 해리포터의 필름 콘서트**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해리포터>의 필름 콘서트 시리즈 월드 투어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영화 한 편 전체를 HD 스크린에 상영하는 동시에 풀오케스트라가 영화에 등장하는 사운드 트랙을 연주하여 생동감 넘치고 풍성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는 2016년 개최된 이래 전 세계 48개국, 900회 이상의 공연으로 총 130만명 이상의 해리포터 팬들이 찾은 바 있다.

- 🕒 **공연기간** 2019.06.01. ~ 2019.06.02.
- 📍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티켓가격** VIP석\_120,000원, R석\_100,000원
- 🌐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 **어느 봄날 만나는 재즈의 향연**  
**서울재즈페스티벌 2019**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서울재즈페스티벌은 매해 국내외 인기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화려한 라인업과 감각적인 무대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서울재즈페스티벌 2019>에는 윈튼 마살리스, 존 스코필드, 핑크 마티니, 토미 엠마뉴엘, 피츠 앤드 더 탠트럼스 등이 출연을 확정지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루시드폴, 에픽하이, 정재형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합류한다. 이 외에도 탄탄한 음악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크러쉬와 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카더가든, 발라드 강자 정승환, 이진아 트리오 등이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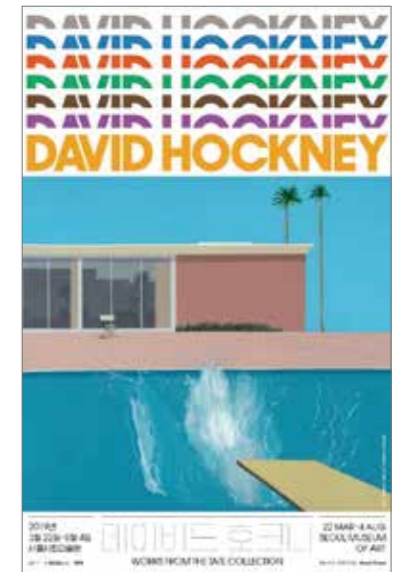
- 🕒 **공연기간** 2019.05.25. ~ 2019.05.26.
- 📍 **공연장소** 올림픽공원
- 🎫 **티켓가격** 1일권\_165,000원, 2일권 245,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 **우리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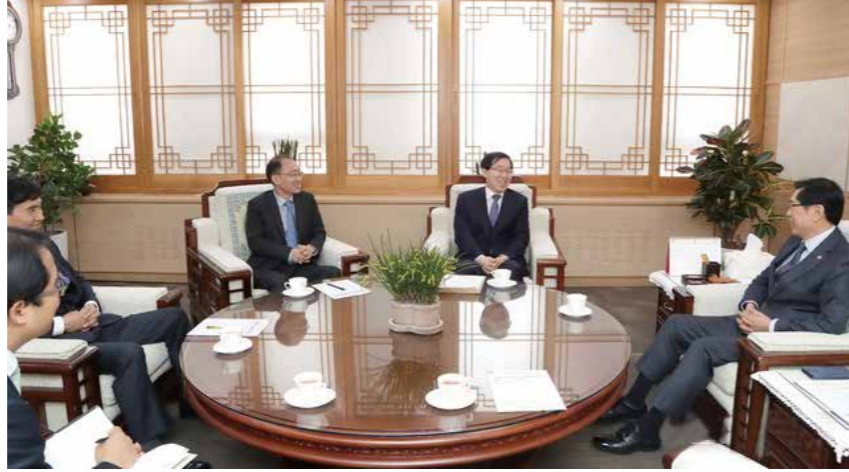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은 지난 2018년 11월 15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9030만 달러(약 1,019억원)에 낙찰되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그린 생존 작가가 됐다. 이번 전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으로 133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수영장 시리즈 중 하나인 <더 큰 첨병, A Bigger Splash>, 2014년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1위에 오른 <나의 부모님, My Parents>, 그리고 테이트 미술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클라크 부부와 퍼시, Mr. and Mrs. Clark and Percy> 등 전 세계 미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들이 총망라되었다.

- 🕒 **전시기간** 2019.03.22. ~ 2019.08.04.
- 📍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3층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면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은 지난 3월 15일(금) 법무부(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건국대 이승호 원장, 서울대 장승화 원장이 배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변호사시험 과목 개선', '시험장 확대', 'CBT 도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의 간담회 개최



3월 22일(금)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 회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방문했다. 법실련은 교수, 변호사, 법전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높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보다 가까운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법실련 회원들은 김순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과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방안, 오탈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면담

지난 3월 28일(목)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이 법전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이 협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를 위해 성사된 것으로, 취임 인사에 이어 두 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양 기관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시 합격률 제고 및 법조 직역 확대 방안,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지난 4월 9일(수)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순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장승화 서울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진행됐다. 법전원협의회 측 참석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전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으로 법전원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 합격률이 급락했을 때의 문제점 등 변호사시험에서 적정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전원협의회 임원진은 앞서 3월 28일(목) 법무부 간담회, 3월 29일(금) 교육부 간담회, 4월 3일(수) 법원행정처장 간담회 등을 차례로 개최해 법전원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제56회 「법의 날」 행사 열려

4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는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제56회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내빈 350여 명이 참석했다.



##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법전원 신임 원장 취임

제주대학교 오성근 원장과 충북대학교 이동원 원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제주대학교 법전원 오성근 원장은 상법/금융법 전문가로서 한국금융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 법전원 이동원 원장은 사회법/경제법 전문가로서 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제주대학교 오성근 원장

충북대학교 이동원 원장



## 법무법인(유한)로고스 2019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모집

- 실무수습 시기 : 2019. 7. 15.(월) ~ 2019. 7. 26.(금) (2주간)
- 실무수습의 내용 : 공통과제, 공통평가, 특강 및 단체활동 등
- 지원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 지원기한 : 2019. 6. 9.(일) 24:00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로고스 홈페이지 양식), 자기소개서(5페이지 이내), 성적증명서(로스쿨 및 학부)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선발 인원 : 12명 내외
- 선발절차 : 서류 또는 면접심사를 통하여 2019. 6. 21.(금)까지 합격자 개별통보
-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2188-1025 (담당변호사- 임형민)  
이메일 : logos\_recruit@lawlogos.com



## 제14회 특허·상품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선택 (중복응모 가능)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 ① 특허분야 :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 ② 상표분야 :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
- 공모기간 : 2019. 4. 16.(화) ~ 2019. 9. 30.(월)
- 시상내역 :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상(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상(특허청장상, 50만원)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271, bmj1219@korea.kr)



# Law Quiz

**Q1**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ㄷ.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Q2**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하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④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않았던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Q3**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A회사는 전기부품의 구입 및 공기청정기의 판매를 H마트에게 위탁하였고, H마트는 B회사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100만원에 매도한 후에 인도하였다. C회사는 B회사의 채권자이다. A회사, H마트, B회사, C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H마트는 B회사에 대하여 공기청정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만약 B회사가 H마트로부터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후에 약정한 매매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H마트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A에게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③ B회사가 H마트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해서는, H마트와 C회사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H마트의 소유로 본다.
- ④ 만약 A회사가 H마트에게 공기청정기를 1대당 8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H마트가 B회사에게 10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그 차액인 20만원은 A회사의 이익으로 한다.
- ⑤ A회사가 H마트에게 매수를 위탁한 전기부품의 구입과 관련해서는 A회사와 H마트 간에는 상법 제 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준용된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